

지역 유통업체, 자금난 협력사에 '통 큰 지원'

광주신세계, 식음료·의류 등 50개 협력업체에 선결제 롯데아웃렛 수완점·농협유통센터도 임대료 유예·인하

코로나19 여파로 자금난에 빠진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광주·전남 대형 유통업체가 '통 큰 지원'에 나섰다.

'착한 소비자 운동'의 하나로 꼽히는 선결제 구매에 동참하거나 판매 수수료·임대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2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협력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상품 대금을 앞당겨 결제한다. 협력업체 업태는 의류와 식음료 등 다양하다.

통상 협력업체 상품 대금은 납품한 지 90일 뒤 지급된다. 지급 일자가 앞당겨지

는 경우는 명절 전에만 해당됐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사는 협력사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약 8000억원의 상품 대금을 앞당겨 결제하기로 지난 달 초 결정했다.

광주신세계 협력업체 100곳 가운데 이번 조기 지급을 신청한 50여 곳 모두가 선결제를 받게 됐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선결제 금액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으로 산정했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구 신가동 농협 광주유통센터에 납

품하는 협력업체 100곳도 임대료·수수료 납부가 유예된다. 이곳에 입점한 휴대폰 대리점·여행사·자동차 수리점·세차장 등 4개 업체도 이달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에서 30% 인하된 금액을 낸다.

롯데백화점 호남총점지역은 전남지역 농식품업체 16곳과 손잡고 '전남도 학교급식 농가 돕기 온라인 기획전'을 열고, 판매 수수료를 50% 낮춘 온라인 행사도 지난 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롯데아웃렛 수완점은 2개월 동안 코로나19 관련 소문으로 매출이 떨어진 식음료 입점업체 20곳에 대해 수수료 5%를 인하한다.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기업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롯데쇼핑 2300억원, 신세계그룹 870억원

등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사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받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가맹본부에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 평가 기준을 세웠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달 9-20일 5인 이상 사업체 52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도소매·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체 10곳 중 1곳(10.3%)은 '자금부족'을 경영여파사항으로 꼽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724.86 (+39.40)	↓ 금리(국고채 3년) 1.059 (-0.033)
↑ 코스닥 567.70 (+15.86)	↓ 환율(USD) 1228.30 (-2.20)

광주·전남 물가 3개월째 1%대 상승

3월 물가 전년동기보다 1.1% ↑ 배추·돼지고기 상승폭 커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 올랐다.

채굴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전남의 경우 105.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올랐고, 전남의 경우 106.35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남 4.0%로 인천·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광주 상승률은 3.1%로 전국 평균 3.2%보다 1%포인트 낮았다.

주요 물품 가격의 증감률을 보면 배추 값은 광주 96.5%·전남 95.7%나 올랐고, 돼지고기도 광주 6.9%·전남 11.5%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 3.6%·전남 3.5% 올랐고, 구강생장제 가격은 전남은 7.2% 올랐지만 광주는 오히려 -7.8% 떨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4분기 연속 하락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64 차부품·화학·고무업종 부진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4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전망지수(BSI) 전망치가 전분기(79)보다 15포인트 하락한 64로 집계되면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고, 반대로 기준치 이상이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2분기 동절기가 마무리된 뒤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임에도 일부 수출규제와 내수경기 위축 등 악재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체감경기가 더 악화된 것으로 광주상의는 분석했다.

여기에 1분기 실적도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전분기(78)보다 29포인트 하락하며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분기(43) 이후 실적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71→72), 'IT·가전'(72→68), '화학·고무·플라스틱'(76→53)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시멘트·콘크리트'(17→117)만 계절적 성수기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면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90→85)과 '중소기업'(78→60) 모두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0.0%, 57.3%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수출규모별로는 '수출기업'(120→64)과 '내수기업'(68→64) 모두 지난분기보다 경기전망이 악화됐고, 특히 수출기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위축과 수출입통관 애로 등으로 감소폭이 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온라인 개학' 맞이 노트북 할인 행사 2일 롯데아웃렛 광주월드점점을 찾은 고객들이 노트북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점포는 15일까지 2주 동안 삼성 노트북을 60만원대에 판매하는 등 할인 행사를 펼친다. <롯데쇼핑 제공>

현대·기아차, 코로나19 피해 고객 보증수리기간 연장

현대·기아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이 만료되는 고객 중 코로나19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수리기간 연장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비롯해 병원 입원,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불가한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외출을 자제했던 고객 등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보증기간은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 2월부터 4월 중 현대·기아차 서비스네트

워크 입고 이력이 있으면 연장이 제외된다.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정비 예약을 하고 전국 서비스네트워크를 방문해 보증수리를 받으면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고객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국세청, 영세사업자 세 부담 완화

정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4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당초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기간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의 경우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가 유예된다.

이들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 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고, 연장된 납부 기한(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위니아에이드, '위니아24크린샵' 가맹점 50% 할인 지원

위니아에이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니아24크린샵'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위니아24 크린샵'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가맹점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의 세제와 섬유유연제, 향균세제 등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50% 할인 공급한다.

또 이용객을 위해 매장에 비치하는 손소독제와 위생장갑 등 관련 소모품도 무상 지원한다. 위니아에이드는 2017년 위니아24크린샵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지난 달 100호점 계약을 체결했으며, 광주·전남에는 2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